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따른 잠재집단 양상: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의 적용

하문선(河文善)*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이질적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격성과 우울 각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에 대한 잠재집단은 3집단이,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은 2집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종 선택되었다. 특히 공격성은 공격성고(5.0%), 공격성중(19.0%), 공격성저(76.0%) 집단으로, 우울은 우울고(25.0%), 우울저(75.0%)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 단계로, 청소년 전체 집단에서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들이 관련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이질적 하위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한 결과,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는 수준에 따라 6개 유형의 잠재집단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어 위기 상태인 집단은 청소년 전체의 약 12%에 해당되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선별과 개입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어 도출되는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특히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자율성과 관계성이 낮을수록 심각한 위기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성별에 따른 선별과 개입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입 방안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청소년, 공격성, 우울, 동반, 자율성, 관계성, 잠재집단

I. 서론

청소년기는 전 생애 주기에서 다양한 활동과 선택을 통해 이후의 삶에 대한 정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왔다(Zarrett & Eccles, 2006).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청소년에게 이러한 준비를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Bagana, 2014).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울과 공격성 등의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하였다(Lipps et al., 2010).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적응에 대해 연구자들은(Achenbach, 1966; Achenbach & Edelbrock, 1978) 크게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와 비행이나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슬퍼거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며, 동시에 인지적 문제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부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Joiner, Metalsky, Katz, & Beach, 1999). 반면, 공격성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과거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다 확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타인을 해치는 광범위한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Anderson & Bushman, 2002).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이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ergusson, Lynskey, & Horwood, 1996). 즉, 청소년기 공격성의 25~34%는 이후의 공격성을 설명하며, 청소년기 우울의 6~35%는 이후의 우울을 설명한다(Beyers & Loeber, 2003).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의 공격성은 이후의 신체적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배우자 학대 등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이 되며(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Olweus, 1979), 청소년기의 우울은 이후의 더 심각한 우울,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자살 등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다고 보고되었다(Fleming & Offord, 1990; McCracken, 1992). 따라서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우울은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과 예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공격성과 우울의 관계와 그 발생과정에 대해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실패모델(the failure model, Capaldi, 1992)은 공격성이 우울 증상에 선행하며 그 원인이 되어 우울을 예측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공격적 행동은 주요 타인(e.g., 부모)에 의한 지지 부족과 거절을 가져오며 이것이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실패 경험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실패 경험이 결국 우울을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Capaldi, 1992). 실패모델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외현화 문제가 이후 내재화 문제를 예측한다고 보고하며

종단연구를 통하여 그 증거들을 제시하였다(Curran & Bollen, 2001; Van Lier & Koot, 2010).

반면, 실행모델(the acting-out model, Carlson & Cantwell, 1980)은 우울이 공격성에 선행하며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모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내재된 우울한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표출되며, 우울이 공격성에 의해 가려진다고(masked) 보는 입장이다(Capaldi, 1992; Overbeek, Vollebergh, Meeus, Engels, & Luijpers,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우울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후 심각한 행동적 문제를 보인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왔다(Vieno, Kiesner, Pastore, & Santinello, 2008; Wiesner, 2003). 이외에도 상호영향모델(the mutual influence model, Overbeek et al., 2001)은 공격성과 우울 중에서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특정한 위험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즉 이 모델에서는 우울이든 공격성이든 간에 한 가지 증상이 다른 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Overbeek et al., 2001).

국내에서도 공격성과 우울의 선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서미정, 2009) 시간 경과에 따른 공격성의 부정적인 변화가 이후 우울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며 실패모델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김태순, 강차연, 2008) 우울한 아동·청소년의 약 1/3이 이후 공격성을 주요소로 하는 행동장애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며 실행모델을 지지하였다. 최근에는 종단연구방법의 발달로 공격성과 우울의 발달 경로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이주영(2010)은 이들 증상들이 시간에 따라 남녀별로 다양한 발달경로를 보여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비행이 우울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오히려 우울이 비행에 선행한다고 보고하였다. 임진섭(2010)은 이전 시점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는 공격성이 높은 경우 교사나 또래, 가족으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과 억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결과가 우울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패모델을 지지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성과 우울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Ritakallio et al., 2008). 연구자들은 이러한 비밀관된 현상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대해서는 이들 증상을 분리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 즉 동반장애(comorbidity)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Knox, King, Hanna, Logan, & Ghaziuddin, 2000; Kovacs, Paulauskas, Gatsonis, & Richards, 1988).

60년대까지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행동 장애는 '가면(masked) 우울' 또는 우울의 '대응물(equivalents)'로서 설명되어졌다(Toolan, 1962). 그러나 80년대 이후 공격성과 우울의 동시 발생은 동반장애(comorbidity)의 일반적인 예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며(Kovacs et al., 1988), 최근에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이 매우 강력하다고 여겨지고(Ritakallio et al., 2008) 이들 증상의 높은 동반 발생율이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Beyers & Loeber, 2003; Biederman, Faraone, Mick, & Lelon, 1995; Fergusson & Woodward, 2002; Goodyer, Herbert, Secher, & Pearson, 1997; Loeber, Farrington, Stouthamer-Loeber, & Van Kammen, 1998). Angold와 Costello(1993)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우울의 동반장애에 대한 역학 연구를 검토한 결과, 행동장애(e.g., 반항 장애, 품행장애)와의 동반 발생율이 21~83%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23~30%가 행동장애를 동반하며(Kovacs et al., 1988; Puig-Antich, 1982) 우울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Knox et al., 2000). 뿐만 아니라 청소년 행동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23%가 우울 증상을 동반하고(Chiles, Miller, & Cox, 1980), 청소년기의 공격적 행동과 우울 증상은 8.5%에서 83.3%까지의 비율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국내에서도 품행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30%가 기분장애를 함께 보이며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19%가 품행장애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신윤오, 조수철, 홍강의, 김자성, 1993).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발생 문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연구자들은 이들 증상들이 동시 발생할 때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일상적 기능에서의 상당한 손상과 전반적인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Keile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즉 동반장애 청소년들은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고(Renouf, Kovacs, & Mukerji, 1997) 대인관계 부적응을 경험하며(Cole & Carpentieri, 1990), 약물남용에 취약하고(Marmorstein & Iacono, 2001) 자살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Brent, Kolko, Allan, & Brown, 1990) 그 심각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문제는 이후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정서행동적,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문제 등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Reinecke & Schultz, 1995)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격성과 우울을 동반하는 청소년은 단독으로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보다 이후 성인기에 더 심각한 우울 에피소드를 보이며(Keller et al., 1988)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Cole & Carpentieri, 199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성과 우울은 서로 분리되어 표출되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청소년 개인에게 상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발생하여 그들의 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격성과 우울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분석하거나, 특정 이론(e.g., 실패이론)을 바탕으로 한 증상이 다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왔다(e.g., 신현숙, 2013; Chen & Simon-Morton, 2009; Van der Giessen et al., 2013). 따라서 공격성

과 우울의 동반 현상을 간과하였으며,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 수준 내에서도 각각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Patterson, Capaldi, & Bank, 1991) 이 하위집단들이 상호 관련되어 도출되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Muthén & Muthé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격성과 우울이 상호 관련되어 다양한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함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각 하위집단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들이 동시에 연관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질적인 하위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의 이질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에 필요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대한 접근에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 장애의 위험 요소가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이주영, 2010) 공통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양한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을 제시하였다(Hamama & Ronen-Shenhav, 2012; 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Neighbors, Vietor, & Knee, 2002). 우선,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성이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변인임을 보고하여왔다(e.g., Maughan, Rowe, Messer, Goodman, & Meltzer, 2004; Overbeek et al., 2001). 또한,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계성이 그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특히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다(e.g., Hamama & Ronen-Shenhav, 2012; MacDonald & Leary, 2005; Neighbors, Vietor, & Knee, 2002).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관계가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으로 여겨지는 학업의 문제는 그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에의 어려움은 그들에게 심각한 정서행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제안되었다(Baker & Siryk, 1984; Yeh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을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우울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Reinecke & Schultz, 1995). 공격성과 우울을 나타내는 청소년은 현재 뿐만 아니라 이후의 부적응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그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으며(Fergusson & Woodward, 2002) 특히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의 높은 발생율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Kovacs 등(1988)은 14세까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의 동반 발생율을 36%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연구자들은(Aguilar, Sroufe, Egeland & Carlson, 2000) 행동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집단은 높은 우울감과 생활 스트레스도 함께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울한 아동의 1/3은 공격성 등 행동 장애를 동반하거나(Carlson & Cantwell, 1980), 1/2은 적대적 반항장애 등 행동장애를 동반한다고 보고되었다(Kashani et al., 1987). 그러나 이 연구들은 공격성과 우울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구인(e.g., 적대적 반항장애)을 사용하는 등 연구방법적인 차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격적, 심리적 변인인 공격성과 우울의 직접적인 동반현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Hoagwood, 2000),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왔다(Tobin & Sprague, 2000). 특히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 등을 가정하였다.

1) 성과 공격성, 우울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의 특징은 공격성과 우울 양상에서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남자 청소년에게 더 높게 나타나며, 우울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곽금주, 문은영, 1993; Ge, Conger, & Elder, 2001; Kim, Hetherington, & Reiss, 1999) 연구자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격성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에게 우세하게 나타나지만(Hale et al., 2008) 여자 청소년 역시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김동기, 홍세희, 2007; Crick & Grotpeter, 1995). 우울의 발생 정도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연구도 있으며(Rudolph, Hammen & Daley, 2006)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거나(Anderson, Williams, McGee, & Silva, 1987) 혹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이 더 높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Wenar & Kerig, 1994). 특히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성이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장애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Maughan et al., 2004; Overbeek et al., 2001; Ritakallio et al., 2008; Zoccolillo, 1992). 그러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장애에 대한 몇몇 성차 연구들 역시 비일관된 결과들이 나타났다. 우울은 공격적인 소년들보다 공격적인 소녀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고(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 & Angold, 2003; Flannery, Singer, & Wester, 2001),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인 소년들보다 공격적인 소년들에게 우울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ughan et al., 2004).

2) 학업성취와 공격성, 우울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Yeh et al., 2007).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학업의 문제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며 특히, 학습의 어려움은 심각한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져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Baker & Siryk, 1984). 이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을 유발하는 영향 변인으로 학업성취를 제시하였다. 먼저, 욕구좌절이론에서는 선행 사건으로 인한 좌절경험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청소년이 학업성취 문제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경우 공격적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사회인지이론(Bandura, 2001)에서는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조절하는 개인의 신념과 자기효능감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공격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 따라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환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문제에서의 좌절, 실패감, 자기효능감 감소로 인한 개인 내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McClelland, Morrison, & Holmes, 2000; Jimerson, Egeland, & Teo, 1999).

한편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에 있어서 학업성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Chen, Rubin, & Li, 1995; Son & Kirchner, 2000). 특히 광범위한 학업수행의 문제는 우울 증상과 관련되며(Chen, Rubin, & Li, 1995), 높은 학업성취가 낮은 우울을 예측하고(Spiegel, Smolen, & Hopfensperger, 1986; Stewart, Lam, & Betson, 1999) 낮은 학업 성취와 학업수행 문제가 높은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Jaycox et al., 2009;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Yeh et al., 2007). 특히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우울의 원인을 이해하고 학업문제에 대한 실패와 좌절을 설명하는데 적용되는 가장 유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Seligman(1975) 외 다수의 연구자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실패와 무기력이 우울과 관련되어 있으며(Abela & Payne, 2003; Dweck & Wortman, 1982), 인간이 학업적 문제에서 반복된 실패 경험에 직면하게 되면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Weiner, Russel, & Lerman, 197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욕구좌절이론, 사회인지이론, 학습된 무기력 이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학업성취의 문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변인으로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자율성과 공격성, 우울

기본심리욕구이론은 개인이 속한 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다(Deci & Ryan, 2000). 연구자들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안녕감의 예측변인이 되는 반면(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Sheldon, Ryan, & Reis, 1996), 이 욕구의 불만족은 심리적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Deci & Ryan, 2000).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 Deci & Ryan, 2000) 이론이 청소년의 공격성 연구를 위한 기본적 틀/framework로서 기능하며,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청소년의 공격성 예방과 개입을 위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Kuzucu & Simsek, 2013).

특히 자율성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타고난 동기로서 기본심리욕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지각으로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며, 자신의 통합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1985).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자율성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고하여왔다. Neighbors, Vietor와 Knee(2002)는 외부에 의해 통제되고 자율성이 낮은 개인은 더 압박감을 느끼며 자아를 방어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부모에 의해 심리적인 통제를 받을 경우 공격성이 유발되며 이후에 지속적인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는 반면(Soensens, Luyckx, Vansteenkiste, Duriez, & Goossens, 2008), 부모에 의해 자율성을 인정받고 지지받는 청소년은 우울 수준이 낮고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zsonyi & Belliston, 2006). 뿐만 아니라 자율성은 친사회적 행동과 비공격적 행동을 예측하며(Mask, Blanchard, Amiot, & Deshaies, 2005), 자율성이 높은 개인은 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고되었다(Kernis, Zuckerman, Cohen, & Spadafora, 1982).

4) 관계성과 공격성, 우울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이다(Baumeister & Leary, 1995).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동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심리적 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며(Horowitz & Vitkus, 1986) 따라서 관계성이 부족한 사람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Baumeister & Leary, 1995; McDonald & Leary, 2005). 연구자들은 관계성의 욕구가 인간의 안녕감과 관련되는 반면(Hofer & Busch, 2011), 대인관계 욕구의 좌절은 안녕감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McClelland, 1987).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나 소속감과 같은 관계성의 중요한 요소들이 청소년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보고하여 왔다(McGinnis & Goldstein, 1997; Ronen & Seeman, 2007).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과 관련된 원천으로 작용한다(Wills & Shinar, 2000). 특히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보호요인이 되는 반면(Hamama & Ronen-Shenhav, 2012) 사회적 고립은 불안, 우울, 분노 및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MacDonald & Leary, 2005). 또한 소속감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Qutaiba & Tamie, 2010)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 주요 변인이다(Napoli, Marsiglia & Kulis, 2003). 청소년의 사회적 소속감은 비행, 약물남용, 흡연, 알콜문제 등과 같은 행동문제를 줄이는데 보호요인이 되는 반면(Napoli, Marsiglia & Kulis, 2003), 소속감의 감소와 사회적 배제는 외로움과 우울 및 분노를 유발하고(Gross, 1998),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적대감(De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과 공격성(Reijntjes et al., 2010)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또래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Parker, Rubin, Erath, Wojslawowicz, & Buskirk, 2006) 또래를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긴다(Hartup, 1996).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이후의 공격적 행동, 비행, 범죄 등과 같은 행동문제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진아, 이형실, 2011; 송미옥, 2011). 또한 또래 지지의 부족, 관계에서의 거절과 좌절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우울감 및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Cillessen, Van IJzendoorn, van Lieshout, & Hartup, 1992; 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부모와의 관계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자들은 청소년과 부모 관계에서의 애착이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및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Kobak, Sudler, & Gamble, 1991).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성과 학업성취 수준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율성과 관계성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3개 중학교와 경기도에 위치한 2개 중학교의 청소년 664명을 대상으로(표 1) 그들의 공격성과 우울 및 관련 변인들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히 전체 청소년 중에서 남자 청소년(code=1)은 371명(55.9%), 여자 청소년(code=0)은 293명(44.1%)이었다. 설문 조사에 협조한 각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사전에 설문지 실시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직접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분포

지역	학교수	대상 학교	성별		총 학생수
			남	여	
서울	3	A	70	59	129
		B	61	51	112
		C	64	42	106
경기	2	D	86	72	158
		E	90	69	159
전체	5		371	293	664

2. 연구 도구

1)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제작한 PCS(Peer Conflict Scale)를 하문선과 김지현(2013)이 타당화한 척도(Korean Peer Conflict Scale; K-P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Reactive Overt aggression; RO) 4문항, '나보다 약한 애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 재미있다.' 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Proactive Overt aggression; PO) 4문항,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RR) 4문항, ‘인기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말을 한다.’ 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PR)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3, 확실히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하문선과 김지현(2013)의 연구에서 전체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93, .81, .81, .82,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 .79, .78, .82, .80이었다.

2) 우울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 전혀 없었다 ~ 3, 매일 있었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학업성취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업성취 수준은 각 학생이 보고한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의 학기말 성적에 대한 평균점수의 각 학교별 Z점수를 구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 점수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4) 자율성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율성은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기본심리교육구척도에서 자율성과 관련된 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 척도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6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자율성 요인의 Cronbach's α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8이었다.

5)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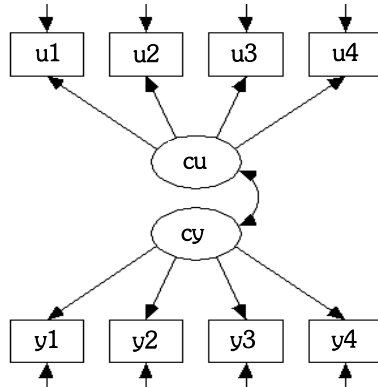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관계성은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에서 관계성과 관련된 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성 척도는 ‘나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6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었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관계성 요인의 Cron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잠재집단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수준 각각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 변인 각각에 대해 순차적으로 집단의 수를 추가함으로써 공격성과 우울 집단의 이질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적용하였다. 이후 다음 단계로, 공격성과 우울 각각의 잠재집단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들 집단들이 연관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 공격성과 우울 각각의 잠재집단 수를 먼저 탐색하여야 이후 분석에서 잠재집단에 대한 label(e.g., 1, 2, 3) 설정을 보다 수월하게 하여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잠재집단분석(LCA)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거가 사용된다(Muthén & Muthén, 2000).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보적합도 지수(Information index)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SA-BIC(Sample-sized-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서는 LMR-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Lo, Mendell, & Rubin, 2001). 또한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Entropy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수준 각각에 대한 잠재집단의 유형을 파악한 후,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어 도출되는 다양한 이질적 하위 집단을 살펴보기 위해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하였다(그림 1). 이러한 분석 방법은 범주 변수인 두 개의 잠재변수가 상관관계에 있고, 각각 자체의 하위 잠재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Muthén & Muthén, 201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 집단이 서로 연관되어 동반되는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므로, 공격성 잠재집단과 우울 잠재집단의 두 개의 범주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고 이들 변수들이 각각의 하위 잠재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 모형은 “PARAMETERIZATION=LOGLINEAR” 지정을 통해 각 잠재변수의 하위 잠재집단들 간 상관이 상정되어 분석되므로 공격성과 우울의 하위 잠재집단들이 서로 연관되어 도출되는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된 다양한 이질적 잠재집단들의 구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Mplus software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Muthén & Muthén, 2010).



[그림 1] Confirmatory LCA model

IV. 연구 결과

1.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

1)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 다양한 하위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서 공격성과 우울 각각에 대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그 기준으로는 AIC, BIC, SSA-BIC, Entropy지수, LMR-LRT의 p -value값 및 최소집단의 사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공격성에 대한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IC, BIC, SSA-BIC 값의 변화 그래프(그림 2)를 살펴보면, 2집단에서 5집단으로 갈수록 그 값이 점점 낮아져 적합도가 점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는 2집단이 1에 가까워(Kreuter, Yan, & Tourangeau, 2008)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3집단, 4집단, 5집단도 모두 양호한 편이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한 LMR-LRT의 p -value값은 2집단, 3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최소 집단의 사례 수 역시 2집단과 3집단이 5%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Jung & Wickrama, 2008). 따라서 AIC, BIC, SSA-BIC, Entropy지수, LMR-LRT p -value값 및 최소 집단의 사례수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잠재집단 수는 3집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해 모형적합도 기준을 살펴보면(그림 3), 4집단이 가장 낮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는 3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는 1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LMR-LRT의 p -value값은 2집단, 3집단, 4집단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최소집단의 사례 수를 보면 2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너무 적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IC, BIC, SSA-BIC, Entropy지수, LMR-LRT의 p -value값 및 최소 집단의 사례수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 수는 2집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 최종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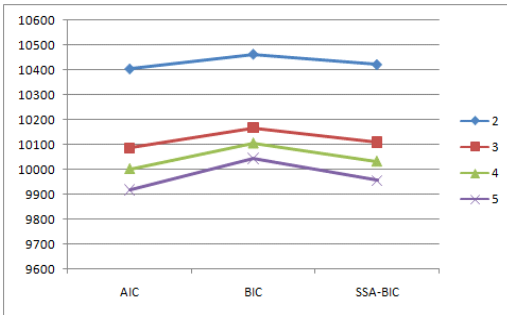
<표 2> 공격성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N=664			
	2	3	4	5
AIC	10404.762	10086.812	10002.130	9918.423
BIC	10463.240	10167.781	10105.590	10044.375
SSA-BIC	10421.964	10110.630	10032.564	9955.474
Entropy	.924	.910	.912	.911
LMR-LRT	873.756	318.158	91.855	90.909
LMR-LRT p -value	.027	.017	.176	.205
Smallest class(r.F.)	97(14.6%)	28(5.0%)	8(1.2%)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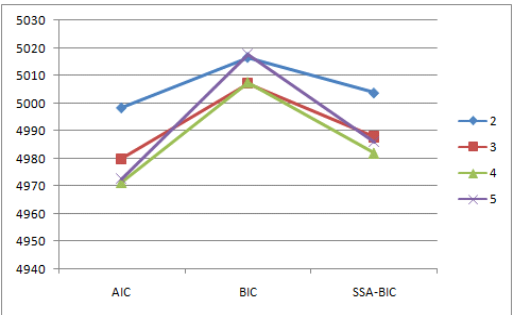
<표 3> 우울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N=664

	2	3	4	5
AIC	4998.409	4979.971	4971.374	4972.716
BIC	5016.402	5006.961	5007.360	5017.699
SSA-BIC	5003.702	4987.910	4981.960	4985.948
Entropy	.716	.796	.736	.708
LMR-LRT	55.907	20.835	11.697	2.468
LMR-LRT <i>p</i> -value	.000	.000	.014	.329
Smallest class(r.F.)	141(25.0%)	13(2.0%)	13(2.0%)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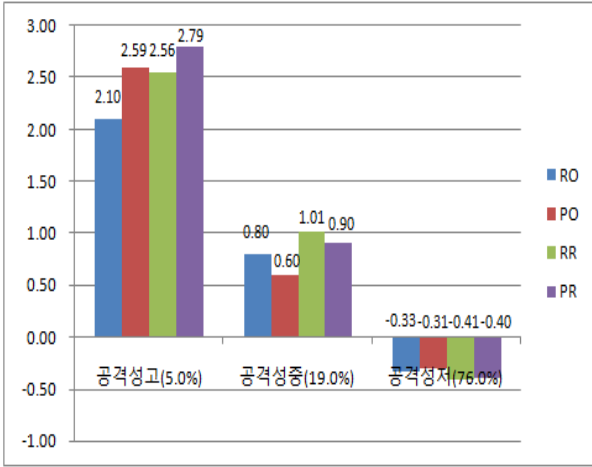
[그림 2] 공격성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AIC, BIC, SSA-BIC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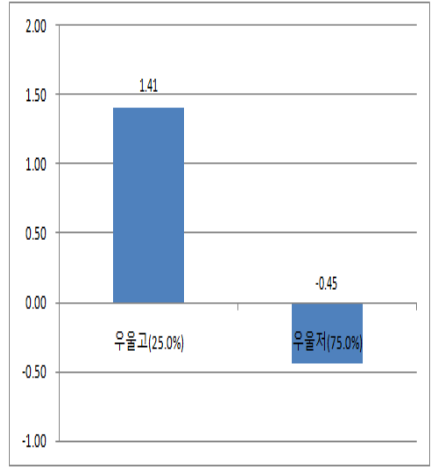
[그림 3] 우울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AIC, BIC, SSA-BIC의 변화

2)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대해서는 최적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 3개의 잠재집단이 분류되었다(그림 4). 특히 공격성의 네 가지 하위 요인 즉 반영적 외현적(RO), 주도적 외현적(PO), 반응적 관계적(RR), 주도적 관계적(PR) 공격성 수준이 모두 가장 높은 양상을 보여준 집단을 공격성고 집단(5.0%)으로, 네 가지 하위 요인의 공격성이 모두 중간 수준인 집단을 공격성중 집단(19.0%)으로, 그리고 네 가지 하위 요인의 공격성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양상을 보여준 집단을 공격성저 집단(76.0%)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는 최적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 2개의 잠재집단에 대해(그림 5),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집단을 우울고 집단(25.0%)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 집단을 우울저 집단(75.0%)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4] 공격성의 잠재집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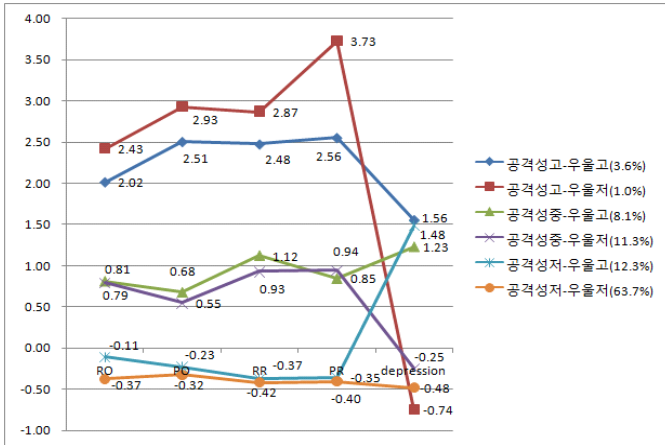
[그림 5] 우울의 잠재집단 비교

2.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따른 잠재집단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성과 우울 각각에 대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적용한 결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3개의 잠재집단으로, 우울은 2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이들 잠재집단들이 관련되어 도출되는 다양한 이질적 하위 집단들을 살펴보기 위해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한 결과, 공격성의 3개 유형과 우울의 2개 유형의 잠재집단이 서로 연관되어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하는 6개(3*2) 유형의 이질적인 하위 잠재집단이 나타났는데(표 4) 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특히, 공격성과 우울 수준이 모두 낮은 적응 집단(공격성저 집단-우울저 집단)은 청소년 전체 집단의 63.7%(422명)를 차지한 반면, 공격성과 우울 수준이 모두 높은 위기 집단(공격성고 집단-우울고 집단, 공격성중 집단-우울고 집단)은 전체 집단의 약 12%(78명)에 해당되었다.

<표 4>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된 잠재집단이 전체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격성 잠재집단			비율(명)
		공격성고 집단	공격성중 집단	공격성저 집단	
우울 잠재집단	우울고 집단	.036(24)	.081(54)	.123(82)	
	우울저 집단	.010(7)	.113(75)	.637(422)	



[그림 6] 격성과 우울의 6개 유형 잠재집단 양상

3. 이질적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어 도출되는 다양한 이질적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을 설정하였다. 이 변인들을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잠재집단의 구분에 있어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응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공격성저-우울저’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잠재집단을 구분해 주는 데 있어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표 5). 그 결과,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일수록, 자율성이 낮을수록, 관계성이 낮을수록, 적응집단(공격성저-우울저)보다 위기집단(공격성고-우울고, 공격성중-우울고)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한편 남자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공격성고-우울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일수록, 관계성이 낮을수록 공격성저-우울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N=664					
비교집단	기준집단	독립변인	계수	표준오차	t
공격성고 -우울고		성	-1.136	.452	-2.513**
		학업성취	-.039	.120	-.325
		자율성	-.131	.053	-2.472**
공격성고 -우울저		관계성	-.143	.049	-2.918**
		성	1.184	.211	5.611***
		학업성취	-.423	.185	-2.286*
공격성고 -우울저		자율성	.077	.107	.720
		관계성	.109	.108	1.009
		성	-1.135	.327	-3.471**
공격성중 -우울고	공격성저 -우울저 (적응집단)	학업성취	-.092	.084	-.110
		자율성	-.121	.038	-5.579**
		관계성	-.183	.036	-5.083***
공격성저 -우울고		성	-1.601	.293	-5.464***
		학업성취	-.007	.076	-.092
		자율성	-.061	.033	-1.848
공격성중 -우울저		관계성	-.212	.032	-6.625***
		성	-.110	.266	-.414
		학업성취	.066	.079	.835
공격성중 -우울저		자율성	-.048	.032	-1.500
		관계성	.011	.034	.324

*** $p < .001$, ** $p < .01$, * $p < .05$

V. 논의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서의 중요한 변화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Leve, Kim, & Pears, 2005)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우울은 연속성을 바탕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동반 장애(comorbidity)의 특성이 보고되어(e.g., Knox et al., 2000) 이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격성과 우울이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집단의 공격성과 우울이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는 잠재집단을 살펴보기 전에 공

격성과 우울 각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CA)을 실시하였다. 그 기준으로 AIC, BIC, SSA-BIC, Entropy지수, LMR-LRT의 p -value값 및 최소집단의 사례수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잠재집단은 3집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울에 대한 잠재집단은 2집단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은 그 수준에 따라 공격성고 집단(5.0%), 공격성중 집단(19.0%), 공격성저 집단(76.0%)으로 분류되었고, 우울 수준에 있어서는 우울고 집단(25.0%), 우울저 집단(75.0%)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전체 집단에서 공격성과 우울의 잠재집단들이 관련되어 도출되는 다양한 이질적 하위 집단들을 살펴보기 위해 로그선형모형(Loglinear model)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Confirmatory LCA)을 적용한 결과,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는 수준에 따라 6개 유형의 잠재집단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공격성과 우울 수준이 모두 가장 낮은 적응 집단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한 반면,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어 위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부적응 집단은 청소년 전체의 약 12%에 해당되었다. 연구자들은 우울한 청소년의 약 25%가 행동문제를 동반하며 특히 이들 중 약 10%는 심각한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Chiles, Miller, & Cox, 1980; Kashani et al., 1980; Marriage, Fine, Moretti, & Haley, 1986)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청소년이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하는 정서행동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주기에서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상적 기능에서의 손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Keiley et al., 2003; Reinecke & Schultz, 1995) 이러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선별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 학업성취, 자율성 및 관계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되는 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자 청소년일수록, 자율성이 낮을수록, 관계성이 낮을수록, 적응집단(공격성저-우울저)보다 위기집단(공격성고-우울고, 공격성중-우울고)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남자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공격성고-우울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자 청소년일수록, 관계성이 낮을수록 공격성저-우울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 분석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여자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자율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을수록 위기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율성과 낮은 관계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Hamama & Ronen-Shenhav, 2012; Neighbors, Vietor, & Knee, 2002; Soenens et al., 2008; MacDonald & Leary, 2005)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모두 낮을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공격성과 우울이 동반하는 위기집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구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보다 대인관계에 대해 더 주의 를 기울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Abele & Wojciszke, 2007; Lippa & Arad, 1999) 남성의 경우보 다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성과 자율성이 높아지고 심리적 웰빙을 느 끼는데(George & Fleming, 2004; Good, Dell, & Mintz, 1989) 이러한 경험이 좌절될 경우 더 심각 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이 위기 집단이 될 가능성에 학업성취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학업성취라는 변 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변인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에 주목하고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남성의 심리적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Abele & Wojciszke, 2007; Sharpe & Heppner, 1991)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우울과 비행의 동반 발생율의 보고에서 남자 청소년 집단보다 여자 청소년 집단이 우울과 비행의 동반 발생율이 더 높은 위기집단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Wiesner & Kim, 2006). 따라서 그 동안의 남자 청소년의 부적응과 위기에 초점을 둔 연구들(e.g., 정익중, 2005; Janey & Lee, 2002; Oakey, 1972; May, 2001; Messerschmidt, 2000; Shover-Norland, 1978)의 범위를 확장하여 위기에 처한 여자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자 세한 분석을 통하여 적절히 선별하고 그 개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 현장에서는 특히 여자청소년들이 그들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 갈등 상황 등에서 화나 분노를 쉽게 표출하지는 않는지,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려고 하 거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e.g. 뒷말, 소문 등)으로 관계를 와해시키지는 않 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등과 함께 무기력과 침울함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집중력의 저하와 실 패감이나 두려움을 보이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동반할 경우 문제의 원인이 지지와 공감, 소속감 등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온 것인지, 자신의 일에 대해 자발성과 자율적 의지가 침해받아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성(gender)과 관련하여 사회에서의 강요나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 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생활을 통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과 하위 잠재 집단들의 연관성을 동시에 연구 에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공격성과 우울의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거나 변수 중 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그 관련성을 파악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격 성과 우울의 동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질적 집단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에 필요한 단서를 확인하고 종합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전체 청소년 중에서 중학생으로 제한되었고, 국내 일부 지역에서의 편의적 표집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대한 시점별 변화과정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 종단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자들은(e.g., 조동윤, 김광웅, 2007; 신현숙, 2012; Wang et al., 2013)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양육 태도 등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였으므로 청소년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선별과 개입에 대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3).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3(1)**, 31-40.
- 김동기, 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진아, 이형실(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011(1)**, 184-184.
- 김태순, 강차연(2008). 고등학생의 우울과 공격성. **심리치료, 8(1)**, 85-100.
- 송미옥(2011).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신윤오, 조수철, 홍강의, 김자성(1993). 소아정신과 입원 환자의 공존질병. **소아청소년정신의학, 4**, 91-97.
- 신현숙(2012). 남자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 연구, 19(2)**, 1-27.
- 이명희, 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주영(2010). 초기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공존발달: 기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진섭(2010).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2)**, 161-186.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 -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익중(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조동윤, 김광웅(2007).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통제소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 치료학회지, 10(3)**, 31-43.
- 하문선, 김지현(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Abela, J. R., & Payne, A. V. (2003). A Test of the integration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in school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5), 519-535.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358-372.
- Achenbach, T. M. (1966). The Classification of children's psychiatric symptoms: a factor-analytic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7), 1-37.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6), 1275-1301.
- Aguilar, B., Sroufe, L., Egeland, B., & Carlson, E. (2000). Distinguishing the early-onset/persistent and adolescence-onset antisocial behavior types: From birth to 16 yea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2), 109-132.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Psychology, 53*(1), 27-51.
- Anderson, J. C., Williams, S., McGee, R., & Silva, P. A. (1987). DSM-III disorders in preadolescent children: Prevalence in a large sample from the general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1), 69-76.
- Angold, A., & Costello, E. J. (1993). Depressive comorbid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12), 1779-1791.
- Angold, A., Costello, E. J., & Erkanli, A. (1999).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1), 57-87.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683-697.
- Bagana, E. (2014). Adolescents'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proactive coping and self-perceived success in academic domai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27*(22), 282-286.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5), 459-464.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yers, J. M., & Loeber, R. (2003). Developmental aspects of delinquency and co-occurring aggression and depressed mood in 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3), 247-266.
- Biederman, J., Faraone, S., Mick, E., & Lelon, E. (1995). Psychiatric comorbidity among referred juveniles with major depression: fact or artifa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5), 579-590.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 Brent, D. A., Kolko, D. J., Allan, M. J., & Brown, R. V. (1990). Suicidality in affectively disordered adolescent in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4), 586-593.
- Capaldi, D. M. (1992).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II. A 2-year follow-up at Grade 8.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1), 125-144.
- Carlson, G. A., & Cantwell, D. P. (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4), 445-449.
- Chen, X., Rubin, K. H., & Li, B. S. (1995).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relations with school performance and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6), 938-947.
- Chen, R., & Simons-Morton, B. (2009). Concurrent changes in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s: A developmental person-centered approa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1), 285-307.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10), 1179-1184.
- Cillessen, A. H., Van IJzendoorn, H. W., van Lieshout, C. F., & Hartup, W. W. (199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Subtypes and stabilities. *Child Development*, 63(4), 893-905.
- Cole, D. A., & Carpentieri, S. (1990). Social status and the comorbidity of chil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48-757.
- Costello, E. J., Mustillo, S., Erkanli, A., Keeler, G., & Angold, A. (2003). Prevalence and

-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837-844.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urran, P. J., & Bollen, K. A. (2001). *The bes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s*. In L. M. Collins & A. G. Sayer(Eds.), *New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pp. 107-1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59.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weck, C. S., & Wortman, C. B. (1982). Learned helplessness, anxie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Neglected parallels in cognitive, affective, and coping responses. *Series in Clinical & Community Psychology: Achievement, Stress, & Anxiety*, 1982, 93-125.
- Fergusson, D. M., & Woodward, L. J. (2002). Mental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role outcomes of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3), 225-231.
- Fergusson, D. M., Lynskey, M. T., & Horwood, L. J. (1996). Childhood sexual abuse and psychiatric disorder in young adulthood: I. Prevalence of sexual abus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10), 1355-1364.
- Flannery, D. J., Singer, M. I., & Wester, K. (2001). Violence exposure, psychological trauma, and suicide risk in a community sample of dangerously violent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4), 435-442.
- Fleming, J. E., & Offord, D. R. (1990). Epidemiology of childhood depressive disorder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4), 571-580.
- Ge, X., Conger, R. D., & Elder Jr, G. H. (2001). Pubertal transit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404-417.
- Goodyer, I. M., Herbert, J., Secher, S. M., & Pearson, J. (1997). Short-term outcome of major depression: I. Comorbidity and severity at presentation as predictors of persistent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2), 179-187.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Hale III, W. W., VanderValk, I., Akse, J., & Meeus, W. (2008). The Interplay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aggression and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 four-year community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28-940.
- Hamama, L., & Ronen-Shenhav, A. (2012). Self-control, social support, an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in divorced and two-parent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5), 1042-1049.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oagwood, K. (2000). Research on youth violence: Progress by replacement, not addi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2), 67-70.
- Hofer, J., & Busch, H. (2011). Satisfying One's Needs for competence and relatedness consequent domain-specific well-being depends on strength of implicit 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9), 1147-1158.
- Horowitz, L. M., &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5), 443-469.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20-1134.
- Janey, B. D. & Lee, H. Y. (2002). Masculinity ideology in Korea society : structure and validity using the multicultural masculinity ideolog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7(1), 63-83.
- Jaycox, L. H., Stein, B. D., Paddock, S., Miles, J. N., Chandra, A., Meredith, L. S., ... & Burnam, M. A. (2009). Impact of teen depression on academic, social, and physical functioning. *Pediatrics*, 124(4), 596-605.
- Jimerson, S., Egeland, B., & Teo, A. (1999). A longitudinal study of achievement trajectories: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1), 116-126.

- Joiner, T. E., Metalsky, G. I., Katz, J., & Beach, S. R. (1999). Depression and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Psychological Inquiry, 10*(3), 269-278.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shani, J. H., Beck, N. C., Hooper, E. W., Fallahi, C., Corcoran, C. M., McAllister, J. A., & Reid, J. C. (1987). Psychiatric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5), 584-589.
- Kashani, J. H., Manning, G. W., McKnew, D. H., Cytryn, L., Simonds, J. F., & Wooderson, P. C. (1980). Depression among incarcerated delinquents. *Psychiatry Research, 3*(2), 185-191.
- Keenan, K., Loeber, R., Zhang, Q.,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 B. (1995). The influence of deviant peers on the development of boys'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A temporal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15-726.
- Keiley, M. K., Lofthouse, N.,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3), 267-283.
- Keller, M. B., Beardslee, W., Lavori, P. W., Wunder, J., Drs, D. L., & Samuelson, H. (1988). Course of major depression in non-referred adolescents: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3), 235-243.
- Kernis, M. H., Zuckerman, M., Cohen, A., & Spadafora, S. (1982). Persistence following failure: The interactive role of self-awareness and the attributional basis for negative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184-1191.
- Kim, J. E., Hetherington, E. M., & Reiss, D. (1999). Associations among family relationships, antisocial peers,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behaviors: Gender and family type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70*(5), 1209-1230.
- Knox, M., King, C., Hanna, G. L., Logan, D., & Ghaziuddin, N. (2000). Aggressive behavior in clinically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5), 611-618.
- Kobak, R.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s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 461-474.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 Richards, C. (1988). Depressive disorders in

-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3), 205-217.
-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latent class analysis to item evalu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71(3), 723-738.
- Kuzucu, Y., & Şimşek, Ö. F. (2013). Self-determined choices and conseq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s and aggression in late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40(2), 110-129.
- Leve, L. D., Kim, H. K., & Pears, K. C.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Lippa, R., & Arad, S. (1999). Gender, personality, and prejudice: The display of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in interviews with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4), 463-493.
- Lipps, G. E., Lowe, G. E., Halliday, S., Morris-Patterson, A., Clarke, N., & Wilson, R. N. (2010). The Association of academic tracking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 three Caribbean countrie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4(16), 1-10.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Loeber, R., Farrington, D.P.,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B. (1998). *Antisoci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problems*. Explanatory fact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Jersey.
- MacDonald, G., & Leary, M. R. (2005). Why does social exclusion hur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d physical pain.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02-223.
- Marmorstein, N. R., & Iacono, W. G. (2001). An Investigation of female adolescent twins with both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3), 299-306.
- Marriage, K., Fine, S., Moretti, M., & Haley, G. (1986).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5), 687-691.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 Mask, L., Blanchard, C. M., Amiot, C. E., & Deshaies, J. (2005). *Can self-determination benefit*

- more than the self? A pathway to prosocial behaviors.* In Post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s Annual Meeting, New Orleans, Louisiana, January.
- Maughan, B., Rowe, R., Messer, J., Goodman, R., & Meltzer, H. (2004). Conduct disorder an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in a national sample: developmental epidemi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3), 609-621.
- May, D. (2001). *Adolescent fear of crime, perception of risk, and defensive behaviors : An alternative explanation violent delinquency*, Lewiston, NY: Edwin Mellon Press.
- McClelland, D. C. (1987). *Human motivation*. CUP Archive.
- McClelland, M. M., Morrison, F. J., & Holmes, D. L. (2000). Children at risk for early academic problems: The rol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307-329.
- McCracken, J. (1992). The Epidemiology of child and adolescent mood disorde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North America, 1*(1), 53-72.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cGinnis, E., & Goldstein, A. P. (1997). *Skillstreami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 New strategies and perspectives for teaching prosocial skills*. Research Press.
- Messerschmidt, J. W. (1993). *Masculinities and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Messerschmidt, J. W. (2000). *Nine lives: Adolescent masculinities, the body, and violence*. Westview Pr.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r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uthén, L., & Muthén, B. (2010). *Mplus user's guide (6th ed)*. Los Angeles: Authors.
- Napoli, M., Marsiglia, F. F., & Kulis, S. (2003). Sense of belonging in school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rug abuse among Native American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s, 3*(2), 25-41.
- Neighbors, C., Vietor, N. A., & Knee, C. R. (2002). A Motivational model of driving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24-335.
- Oakey, A. (1972). *Sex, Gender and Society*. N. Y.: Harper & Row.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4), 852-857.

- Overbeek, G., Vollebergh, W., Meeus, W., Engels, R., & Luijpers, E. (2001). Course, co-occurrence,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emotional disturbance and delinquency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 six-year three-wave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4), 401-426.
- Parker, J., Rubin, K., Erath, X., Wojslawowicz, J., & Buskirk, A. (2006).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 419-493.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An earlier draft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Earlscourt Conference on Childhood Aggression, Toronto, Canada, Jun 198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4(2), 329-335.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1(2), 118-128.
- Qutaiba, A., & Tamie, R. (2010). Self control and a sense of social belonging as moderators of the link between poor subjective wellbeing and aggression among Arab Palestinian adolescents in Israel.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334-134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ijntjes, A., Thomaes, S., Bushman, B. J., Boelen, P. A., de Castro, B. O., & Telch, M. J. (2010). The Outcast-lash-out effect in youth alienation increases aggression following peer reje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10), 1394-1398.
- Reinecke, M. A., & Schultz, T. M. (1995). Comparison of self-report and clinician ratings of depression among outpatient adolescents. *Depression*, 3(3), 139-145.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enouf, A. G., Kovacs, M., & Mukerji, P. (1997). Relationship of depressive, conduct, and

- comorbid disorders and social functioning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7), 998-1004.
- Ritakallio, M., Koivisto, A. M., von der Pahlen, B., Pelkonen, M., Marttunen, M., & Kaltiala-Heino, R. (2008). Continuity, comorbidity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ur in middle adolescence: A 2-year prospective follow-up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31(3), 355-370.
- Ronen, T., & Seeman, A. (2007).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in boarding schools under threat of wa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6), 1053-1062.
- Rudolph, K. D., Hammen, C., & Daley, S. E. (2006).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adolescents: Nature, assessment, and treatment*.
- Schwartz, G. (1978). Estimation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 Sharpe, M. J. & Hepp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23-330.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 Shover, N. & Norland, S. (1978). Sex roles and criminality: science and conventional wisdom?. *Sex Roles*, 4(1), 111-215.
- Soenens, B., Luyckx, K., Vansteenkiste, M., Duriez, B., & Goossens, L. (2008). Clarifying the link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Reciprocal versus unidirectional models. *Merrill-Palmer Quarterly*, 54(4), 411-444.
- Son, S. E., & Kirchner, J. T. (2000).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Family Physician*, 62(10), 2297-308.
- Spiegel, D. A., Smolen, R. C., & Hopfensperger, K. A. (1986). Interpersonal stress in medical education: correlates for men and women stu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Women's Association*, 42(1), 19-21.
- Stewart, S. M., Lam, T. H., Betson, C. L., Wong, C. M., & Wong, A. M. P. (1999). *A Prospective analysis of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the first two years of medical school*. Medical education.
- Tobin, T., & Sprague, J. (2000). Alternative education strategies reducing violence in school and the communit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3), 177-186.

- Toolan, J. M. (1962).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2(3), 404-415.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 Van der Giessen, D., Branje, S., Overbeek, G., Frijns, T., van Lier, P. A. C., Koot, H. M., & Meeus, W. (2013). Co-occurrence of aggressive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multi-informant study.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3(4), 193-201.
- Van Lier, P. A. C., & Koot, H. M. (2010). Developmental cascades of peer relations and symptom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from kindergarten to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569-582.
- Vazsonyi, A. T., & Belliston, L. M. (2006). The cultural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parenting processes in adolescent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4), 491-505.
- Vieno, A., Kiesner, J., Pastore, M., & Santinello, M. (2008).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Longitudinal and concurrent relations. *Adolescence*, 43(171), 649-660.
- Wang, P. W., Yang, P. C., Yeh, Y. C., Lin, H. C., Ko, C. H., Liu, T. L., & Yen, C. F. (2013). Self-esteem in adolescent aggression perpetrators, victims and perpetrator-victim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family support. *The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9(4), 221-228.
- Weiner, B., Russel, D., & Lerman, D. (1978). *Affektive auswirkungen von attributionen*. In Bielefelder Symposium über Attribution, Stuttgart.
- Wiesner, M., & Kim, H. K. (2006). Co-occurring delinquency and depressive symptoms of adolescent boys girls: A dual trajectory modeling approach.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220-1235.
- Wenar, C., & Kerig, P. (199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McGraw-Hill. New York.
- Wiesner, M. (2003). A longitudinal latent variable analysis of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c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633-645.
- Wills, T. A., & Shinar, O. (2000). Wills, T.A., & Shinar, O. (2000). *Measuring perceived and received social support*. In S. Cohen, L. Gordon, & B. Gottlieb (Eds.),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pp. 86-13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eh, Y. C., Yen, C. F., Lai, C. S., Huang, C. H., Liu, K. M., & Huang, I. T. (2007).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anxiety and depression in medical students experiencing integrated curriculum reform. *The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3(8), 379-386.

Zarrett, N., & Eccles, J. (2006). The Passage to adulthood: Challenges of late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06(111), 13-28.

Zoccolillo, M. (1992). Co-occurrence of conduct disorder and its adult outcome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3), 547-556.

* 논문접수 2015년 11월 3일 / 1차 심사 2015년 12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3월 3일 / 게재승인 2016년 3월 11일

* 하문선: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홍익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sunny7601@hanmail.net

Abstract

The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 Comorbidity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n Application of the Confirmatory LCA(Latent Class Analysis) using the Loglinear Parameterization

Ha, moonsun*

I examined the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 comorbidity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onfirmatory LCA using the loglinear parameterization. First, I applied the Latent class analysis for each variable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I then associated the latent classes of aggression and depression through the confirmatory LCA using the loglinear parameterization. LCAs analysis showed that aggression have three types of latent classes, and depression have two types of latent classes. The latent classes were defined as high group(5.0%), moderate group(19.0%) and low group(76.0%) in aggression, and high group(25.0%) and low group(75.0%) in depression. Next, the confirmatory LCA showed that serious risk population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2% of the total. Therefore, appropriate screening and adequate interventions is needed for this crisis group. Subsequently, I tested whether the personal, socioenvironment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ivision of latent classes accompanied by aggression and depression through the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more girls and lower the autonomy and relatednes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risk grou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a customized interventions based upon gend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enrich future research on counseling and education of youth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plan for the juvenile maladjustment problems.

Key words: Adolescence, Aggression, Depression, Comorbidity, Autonomy, Relatedness, Latent Class

*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Hongik University lecturer